농어촌公전남본부, 장마 대비 시설물 관리 강화

이광래 상임감사, 호우취약 현장 점검

안태호 기자

2025년 06월 22일(일) 19:41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최근 함평 월야취입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배수 현황 등을 점검했다. <농어촌公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2일 “올해 장마 양상이 기습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커질 것을 대비해 홍수기 동안 저수지 관리 수위를 70-80%로 정하고 저수지 수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관내 전 지사가 배수장 작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저수지 수위 및 제방 확인과 배수로 퇴적물 제거 여부 등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확인 정비하고 시설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이에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전날 호우 피해 우려 지역인 전남 함평 월야취입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배수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 근무중인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월야취입보 보수 공사 현장은 제방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를 덮어 추가 피해를 막고 있으며 호우에 취약한 지점에는 물의 흐름을 막도록 파일을 심어 놓은 등 호우 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집중호우로 현장 안전 상황을 살펴보고자 방문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당분간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지역본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총 204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현장에서는 배수로 정비, 저수지 수위 조절, 배수장 가동 등 대응체계를 갖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jdaily.com/1750588899658464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2일 08:46:50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호우취약 월야 취입보 시공 현장 점검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6.23 10:22

장마철 선제 대응 강조, 현장 비상 근무 직원 격려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휴일인 21일(토) 오전, 호우 피해 우려 지역인 전남 함평 월야취입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배수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 근무중인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월야취입보 보수 공사 현장은 제방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를 덮어 추가 피해를 막고 있으며 호우에 취약한 지점엔 물의 흐름을 막도록 파일을 심어 놓은 등 지난 20일까지 호우 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전남 함평 지역에는 지난 19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우량 93mm(이날 4시 기준), 시간당 최대 32.5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어 전남 전역엔 50~120mm 정도의 추가 강우가 예보돼 시공 현장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집중호우로 현장 안전 상황을 살펴보고자 방문했다"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직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당분간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지역본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총 204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현장에선 배수로 정비, 저수지 수위 조절, 배수장 가동 등 대응체계를 갖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춘배 기자 acbae@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Daily
호남·제주

농어촌公 이광래 상임감사, 호우취약 월야취입보 시공 현장 점검

장마철 선제 대응 강조, 현장 비상 근무 직원 격려

기사입력 2025-06-21 22:02:54 | 이성호 기자 | seongho2015@hanmail.net

▲ 농어촌公 이광래 상임감사, 호우취약 월야취입보시공 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휴일인 21일(토) 오전, 호우 피해 우려 지역인 전남 함평 월야취입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배수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 근무중인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월야취입보 보수 공사 현장은 제방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를 덮어 추가 피해를 막고 있으며, 호우에 취약한 지점에는 물의 흐름을 막도록 파일을 심어 놓은 등 지난 20일까지 호우 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전남 함평 지역에는 19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우량 93mm(금일 오후 4시 기준), 시간당 최대 32.5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어 전남 전역에는 50~120mm 정도의 추가 강우가 예보되어 시공 현장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집중호우로 현장 안전 상황을 살펴보고자 방문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당분간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지역본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총 204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현장에서는 배수로 정비, 저수지 수위 조절, 배수장 가동 등 대응체계를 갖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seongho2015@hanmail.net)

이 기사 주소: https://gj.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21/2025062100059.html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함평 월야양수장 현장 점검

우수한 기자 | 승인 2025.06.23 08:27

집중호우 대비 현장 안전 관리 철저 당부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호우취약 월야취입보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뉴스웍스=우수한 기자]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21일 집중호우 대비 전남 함평군 월야양수장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월야양수장 보수공사 현장은 현재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방수포 등으로 덮어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20일까지 집중호우 대비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전남 함평 지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93mm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시간당 최대 32.5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전남 전역에도 앞으로 50~120mm의 추가 강우가 예보돼 있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집중호우 상황 속에서 현장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한다"며 "집중호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임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공공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재난대책 관련 인력을 중심으로 총 204명의 직원이 저수지 관리와 배수장 운영 등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수한 기자 honam1203@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투데이

이광래 농어촌公 상임감사, 호우취약 월야취입보 시공 현장 집중 점검

승인 : 2025-06-22 13:55:00

장마철 선제 대응 강조, 현장 비상 근무 직원 격려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오른쪽 두 번째)는 지난 21일 호우 피해 우려 지역인 전남 함평 월야취입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배수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지난 21일 호우 피해 우려 지역인 전남 함평 월야취입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배수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 근무중인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22일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현재 월야취입보 보수 공사 현장은 제방 무너짐을 방

지하기 위해 방수포를 덮어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 호우에 취약한 지점에는 물의 흐름을 막도록 파일을 심어 놓은 등 지난 20일까지 호우 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

전남 함평 지역에는 지난 19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우량 93mm(21일 오후 4시 기준), 시간당 최대 32.5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어 전남 전역에는 50~120mm 정도의 추가 강우가 예보되어 시공 현장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집중호우로 현장 안전 상황을 살펴보고자 방문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당분간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지역본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총 204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현장에서는 배수로 정비, 저수지 수위 조절, 배수장 가동 등 대응체계를 갖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명남 기자 sidae1004@asiatoday.co.kr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公 이광래 상임감사, 호우취약 월야취입보 시공 현장 점검

김육봉(=호남) 기자 | 승인 2025.06.22 10:31

[사진 제공=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휴일인 21일(토) 오전, 호우 피해 우려 지역인 전남 함평 월야취입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배수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 근무중인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월야취입보 보수 공사 현장은 제방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를 덮어 추가 피해를 막고 있으며, 호우에 취약한 지점에는 물의 흐름을 막도록 파일을 심어 놓은 등 지난 20일까지 호우 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전남 함평 지역에는 19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우량 93mm(금일 오후 4시 기준), 시간당 최대 32.5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어 전남 전역에는 50~120mm 정도의 추가 강우가 예보되어 시공 현장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광래 상임감사는 "집중호우로 현장 안전 상황을 살펴보고자 방문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당분간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지역본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총 204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현장에서는 배수로 정비, 저수지 수위 조절, 배수장 가동 등 대응체계를 갖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영농신문
www.youngnong.co.kr

한국농어촌공사 이광래 상임감사, 호우특보 발령에 따라 긴급 현장점검

김도윤 기자 승인 2025.06.22 22:59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전남 함평군 소재 월야취입보 시공 현장을 긴급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영농신문 김도윤 기자]

6월21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전남 함평군 소재 월야취입보 시공 현장을 긴급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

현재 월야취입보 보수 공사 현장은 제방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를 덮어 추가 피해를 막고 있으며, 호우에 취약한 지점에는 물의 흐름을 막도록 파일을 심어 놓은 등 지난 20

일까지 호우 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춘 상태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함평 지역에 시간당 최대 32.5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추가 강우가 예보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휴일에도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광래 상임감사는 현장 배수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 근무중인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한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확인 정비하고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하고, 앞으로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다양한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맞춘 가상훈련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본부는 김재식 본부장 진두지휘 아래 현재 204명이 비상 근무중에 있으며, 현장에서는 배수로 정비, 저수지 수위 조절, 배수장 가동 등 대응체계를 갖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nh9669@daum.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